

## 아산농어촌공사, 극한호우 대비 '배수펌프용량 증대' 등 항구 대책 마련

[이신학]



지난 달 16일 극한 호우로 곡교천 제방에서 염성배수장으로 월류하는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지난 7월 충남 아산지역에 24시간 기준 300년 빈도를 초과하는 380mm의 폭우가 내림에 따라 배수장 처리 용량의 한계를 실감한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항구적 대책 방안을 모색한다.

아산지사는 앞으로 변화하는 기후와 극한호우에 대비해 하천정비, 배수펌프용량 증대 등 노력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25일 아산시지사에 따르면 이번 수해 이후 호우에 대비해 즉시 배수장 보수를 실시하고 비상 엔진양수기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현장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산지사는 호우특보 발효 기간 내내 전직원이 투입되어 교대근무 등을 실시했으며,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등 신속한 대응을 진행했다.

아산지사는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배수장 내 가동인원 배치를 완료하고, 배수장 가동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극한호우와 더불어 국가하천인 곡교천이 범람하고 지류 하천마저 일부 붕괴되고 범람했다.

이에 하천으로 흘러나가야 할 홍수가 지형상 낮은 배수장 쪽으로 유입됐으며, 아산지사는

이 날 새벽부터 배수장을 모두 가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는 계속 올라왔고 결국 10개소중 2개소의 배수장이 침수가 됐다.

그런 와중에 아산지사는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배수장을 끝까지 가동했고 불어난 물에 직원이 제방에 고립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아산지사는 앞으로 침수피해가 난 염성과 중방배수장은 항구적 대책 방안으로 재해복구 사업에 반영해 펌프 및 제진기 교체, 수배전반 이전 등 시설물 보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가 빈번하게 쏟아져 일부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아산시와 협조해 재난대응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